

해 외 출 장 보 고 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2023. 11.

**에너지국제협력센터
에너지국제기구협력실**

**연구위원 유학식
부연구위원 김수인**

요 약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23.11.16(목)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참석) 한미 장·차관급 및 기업
 - * (한국대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미국대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차관
 - * (참석기관 및 기업) 무탄소연합,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위원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LS일렉트릭, 현대자동차, 한국전력(이상 한측기업),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손모빌, EPRI
- (주요의제) ❶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필요성 및 인식 확산, ❷ 무탄소 에너지 촉진을 위한 정부간/민관 협력 강화, ❸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2.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11.16, 목)

- ※ 참석 기업별 발언은 산업부-기업 간 협의에 따라 대외비로 결정되어, 출장보고서에 불포함 (*보도자료 첨부)
-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그린수소, 암모니아 등의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공감대 확인
 -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은 기업의 청정전력 조달에 대한 다양성과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을 강조
-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는 정부 간 협력과 민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청정전력 조달 관련 규제 도입,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을 위한 명확한 정책과 제도,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이 필요함에 다수 기업들의 의견이 수렴
- 무탄소에너지 보급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한미 협력, 민관 협력에 CF연합의 역할 기대

I. 출장개요

□ 출장자

- 연구위원 유학식, 부연구위원 김수인

□ 출장목적

- 2023년 APEC 정상회의 대통령 방미 계기, 산업부가 개최·주관하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지원 및 참석
 - 대표단: 산업통상자원부 유재영 서기관(수석대표), 정주원 전문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학식 연구위원, 김수인 부연구위원

□ 출장지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출장일정

일 자	일 정
11/15(수)	부산* → 인천 → 샌프란시스코
11/16(목)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준비 및 참석
	산업부 장관님-미 국무부 차관 양자면담 준비 및 참석
11/17~18(토)	샌프란시스코 → 인천 → 부산*

* 김수인 부연구위원은 부산 출발/도착

※ 비용 관련 참고사항

- 본 출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내 회의조성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들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담당하여, 회의장 대여/오디오시스템/현지벤더/국내 대행사/CF연합 이회성 대사 동반출장 등 많은 비용이 소요
 - 회의 조성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모든 세부 영수증을 유첨하였으며,
 - 비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총 비용 정리) 한미 BRT 회의준비 총 비용’ 한글 파일을 통해 대조 가능

II. 주요 논의내용

1)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11/16, 목)

(1) 개회세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무부 차관

- (산업부장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가용한 모든 에너지원, 즉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을 언급
- (국무부 차관) 한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잠재력을 강조하며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 (CEBA*)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수요를 견인코자 미 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 창출과 시장 확대를 촉진 필요성 역설

* CEBA(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美)

- (CF연합)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이행기관으로서 CF연합을 소개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 강조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 활용의 불가피성을 강조
- ※ 참석 기업별 발언은 산업부-기업 간 협의에 따라 대외비로 결정되어, 출장보고서에 불포함(보도자료로 갈음)

III. 관찰 및 평가

-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그린수소, 암모니아 등의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공감대 확인
-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은 기업의 청정전력 조달에 대한 다양성과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을 강조
-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는 정부 간 협력과 민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청정전력 조달 관련 규제 도입,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을 위한 명확한 정책과 제도,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이 필요함에 다수 기업들의 의견이 수렴
- 무탄소에너지 보급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한미 협력, 민관 협력에 CF연합의 역할 기대

IV. (참고)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1. 17.(금) 배포즉시 <11.17.(금) 석간>

배포

2023. 11. 17.(금)

무탄소(CF) 연합, 미국 주요 기업들과 무탄소에너지(CFE) 논의 본격 시동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 양국 기업 간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및 청정전력 투자 확대 방안 논의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하여 공식 출범한 무탄소(CF) 연합(Carbon-Free Alliance)이 한국 및 미국 주요 기업들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美)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Under Secretary Jose W. Fernandez) 차관과 11. 16일(목, 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하였으며, 이 회의에 정보기술(IT),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공급 분야의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의 무탄소(Carbon-Free) 연합,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이 참석하였다.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LS, 한전 및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스모빌, EPRI 등 이날 참석한 양국 기업들은 순 배출 영점화(넷 제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민·관 협력 및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며, 특히 다양한 청정에너지 활용 촉진 및 청정전력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방 장관은 “오늘 참석한 한-미 주요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무탄소(CF) 연합과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서로 협력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무탄소(CF) 연합의 이회성 특임대사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공급 역량과 수요 촉진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한 시점” 임을 강조하며 무탄소(CF) 연합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기업들이 탈탄소화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필요한 청정전력 확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청정전력 수요 등을 알리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